눈 뜨고 코 베인 기막힌 이야기 화 많이 나데요

론스타 사건 다룬 영화 '블랙머니' 배우 조진웅

사회 고발 영화 … 사건 실체 쫓는 검사 역할
"배우 일 말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론스타 사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눈 뜨고 코 베인 이야기잖아요. 단순한 이야기라 그것만 잘 전달하면 되겠더라고요."

배우 조진웅(43·본명 조원준)이 올해 세 번째 영화로 관객을 찾는다. 오는 13일 개봉한 '블랙머니'에서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을 추적하는 검사 양민혁을 연기했다. 정지영 감독의 '남영동 1985'(2012) 이후 8년만 복귀작이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조진웅은 "이번 영화에서는 화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양민혁은 드라마 '시그널'(2016)의 이재한 형사 등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달라요. 사건과 부딪치는 중에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이 눈 뜨고 코 베인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양민혁은 사건 진실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영화와 보폭을 맞춰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특히 마지막에 진실을 밝히는 그의 모습은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영화를 보니까 제가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마지막에 진실 밝히는 시위 장면은 두세 테이크 더 갔으면 득음할 뻔했어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웃음) 아무리 봐도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면은 제 원래 모습과도 닮았죠."

이 때문에 항상 사회 비판적 시각을 갖고 영화를 만드는 정지영 감독과도 통하는 면이 있었다고 한다.

"정지영 감독님은 장인이시죠. 장인과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직설적이시고, 그래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46년생으로 저희 아버지와 동갑이시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감독님한테 분명 집요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배우에게 압력을 넣는다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셨죠."

'블랙머니'와 같은 사회 고발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영화가 세상을 발칵 뒤집을 수는 없을지언정 충분히 자극될 수는 있죠. 저는 돌아가신 고 최진실 선배가 제 롤모델이었어요. 최진실 선배가 나온 건 다 봤어요. 최진실 선배가 나온 걸 보다 보니 다른 배우가 보이고, 다른 작품도 보고. 그렇게 제 세상이 바뀌었죠. 이렇게 (영화가)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 '광대들: 풍문조작단', '퍼펙트맨' 등 조진웅이 출연한 영화가 연달아 개봉했지만 흥행 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진웅은 "흥행성 보고 작품을 선택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작품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걸 마음에 담아둘 수는 없죠. '아 이렇게 해 볼걸',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저만의 데이터만 남는 것이죠. 더 집요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죠. 또 개봉 시기는 배우와는 무관하니까요."

현재 차기작을 촬영 중이라는 그는 "지금까지 배우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며 "나는 (배우 일 말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만두면 굶어 죽는다"고 호탕하게 웃었다. /연합뉴스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 예방과 치료법

MBC '오매 전라도' 오늘 오후6시25분
화순전남대병원 김형록 교수 출연

광주·목포·여수MBC가 공동제작하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오매 전라도'에서는 대장암 명의로 손꼽히는 화순전남대병원 김형록(사진) 대장항문외과 교수를 초대, 대장암 예방과 치료법에 관해 들어본다. 14일 오후 6시25분 생방송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장암 예방의 중요성, 다양한 증상과 치료법, 생활습관 개선 등 궁금한 사항에 관해 들려준다.

김형록 교수는 지난 2017년 EBS 의학다큐 '명의'에 출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대장암 치료 적정성 평가'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이 수년간 100점 만점을 받는 등 우수한 의료역량을 발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외환자들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도 얻고 있다.

김교수는 최근 10여년간 1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지난 8월 '화순 바이오 메디컬 워크숍'(약칭 HBMW)에서 '우수 연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장은 몸속 다른 장기보다 탄력이 뛰어나 암이 생겨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 통증을 느끼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대장암 환자들이 많은 이유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가을바람 타고온 시티팝…김현철 정규앨범

13년 만에 앨범 '돛' 발매

청량한 도시 감성의 '시티팝' 음악 '원조'로 새롭게 조명받는 가수 겸 프로듀서 김현철(50·사진)이 13년 만의 정규 앨범을 낸다.

13일 소속사 에프이스토어에 따르면 김현철은 오는 17일 오후 6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규 10집 앨범 '돛'을 발매한다. 2006년 발표한 9집 '토크 어바웃 러브'(Talk about love) 이후 첫 정규 앨범이다. 김현철은 정규 10집의 선공개 격인 미니앨범 '10집 - 프리뷰'(10th - preview)를 지난 5월 공개했다.

이번에 발매하는 '완성형' 앨범은 총 17트랙 2CD의 풍성한 구성을 자랑하며 LP도 순차 발매할 예정이다.

김현철은 지난 1989년 '춘천가는 기차'가 수록된 1집을 시작으로 '달의 몰락', '일생을', '왜 그래' 등 다수 히트곡을 냈다. 시티팝은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대에 꽃핀 도회적인 분위기 음악이다.

한편, 시티팝 계보를 잇는 아티스트로 활약 중인 가수 겸 프로듀서 뮤지(Muzie)도 17일 싱글 '이젠 다른 사람처럼'을 공개한다. 뮤지는 지난해 시티팝 앨범 '컬러 오브 나이트'(Color of Night)를 발매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동백꽃 필 무렵(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꾸러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쥐라기 캅스 쥬라킹 25 콩순이의 율동교실 40 시노스톤			00 뉴스브리핑
3	10 우리말 겨루기(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5 두 번은 없다(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네모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갤럭시웨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양코르 MBC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맨 인 블랙박스(재) 20 돈 워리 스쿨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지역MBC UHD공동기획 10부작 포구만리	00 시크릿 부티크
11	35 UHD 하룻밤 여행 소리랑 40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 특집 미스터리 추적 안중근의 총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5 KBS 뉴스 45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두 번은 없다(재)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재)

EBS1

07:00 코코몽3
07:15 피피루 안전특공대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9:30 다큐동화 달팽이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3:00 다큐 시선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5:10 코코몽3(재)
15:25 트리푸톰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16:10 예술아 놀자
16:25 올리 앤 문(재)
16:40 딩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뭐든지 뮤직박스
17:30 페파 피그(재)
1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4남매 쇼
20:30 자이언트 펭TV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오지 말레이 반도 -반짝 반짝 빛나는, 끄라비〉
21:30 한국기행
〈가을산 표류기 4부 소백, 가을이 물들다〉
21:50 다큐 시선
22:45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음 10월 18일 乙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길조가 넓은 국면으로 확대 되어가는 형상이다. 48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취월장하리라. 60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가 될 것이니 감내하고 지내자. 72년생 횡재수가 보인다. 84년생 노력에 비해 효과는 별로이다. 96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길사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56, 82

丑 37년생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니 박차를 가하라. 49년생 대화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 61년생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 될 수 있겠다. 73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필연코 길한 방향으로 선회하겠다. 85년생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이다. 97년생 계획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10

寅 38년생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고역이 될 것이다. 50년생 갑자기 허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애석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62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이다. 74년생 결실을 목전에 두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일이 생긴다. 86년생 선택하기에 애매한 조건이 주어지리라. 98년생 지각 변동을 재촉 하리라. 행운의 숫자 : 94, 34

卯 39년생 적나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리라. 51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탈이 없다. 63년생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75년생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87년생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형국이로다. 99년생 소중한 사람이나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3, 51

辰 40년생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52년생 주관에 사로잡힌다거나 과잉 판단을 한다면 손실이 따른다. 64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76년생 상호적이다. 88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대처하라. 00년생 더불어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61

巳 41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핵심 가치에 치중하는 것이 실속 있다. 53년생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고민이 해소 된다. 65년생 틀리지 않게 잘 보고 조처하자. 77년생 터무니없는 소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89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01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 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행운의 숫자 : 60, 79

午 30년생 규칙적이라면 신뢰감을 준다. 42년생 근본적으로 상호 결부되어 있음을 알자. 54년생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국면에 이른다. 66년생 현재의 국세로는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78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라. 90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하자.
행운의 숫자 : 89, 18

未 31년생 고르지 않는 성국이다. 43년생 진면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 55년생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유동적인 변수가 매우 크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열어 두자. 79년생 당래지사가 여의치 않으면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낫겠다. 91년생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05, 63

申 32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리라. 44년생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국면 전환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56년생 어떠한 재난에도 능히 당해 낼 수 있으리라. 68년생 너무나 비슷비슷 하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80년생 단단히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92년생 인식한 즉시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96, 07

酉 33년생 소강상태 하에 놓여있는 기존의 국면을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45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키자. 57년생 중간 점검은 추진력에 일조한다. 69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81년생 세부적인 점검과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93년생 적부의 판단을 해야 할 입장이 된다. 행운의 숫자 : 51, 19

戌 34년생 조짐이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 46년생 지혜로움을 발휘한다면 후환을 면하리라. 58년생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다. 70년생 관계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옳다. 82년생 삼가지 않으면 사면초가에 놓일 것이다. 94년생 디딤돌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45

亥 35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리라. 47년생 방치한다면 패착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59년생 우발적이라면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71년생 과욕은 곧 어리석음을 낳게 될 것이니라. 83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95년생 잘 살펴보아라.
행운의 숫자 : 46, 27